

## 한강학, 상주권 한강 문인의 학문과 사상

추 제 협\*

- I. 들어가며
  - II. 상주권 유학의 전통
  - III. 상주권 한강 문인들
  - IV. 한강 문인들의 학문과 사상
  - V. 나오며

### 국문초록

‘한강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 사상적 특징에 대해 회통성, 독창성, 실천성으로 보고된 바, 이러한 특징이 하나의 ‘학’적 정체성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연구를 확대하고 보다 깊은 분석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상주권의 한강 문인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주권은 좌우로 강과 산이 있는 동서서고의 지형으로, 여기에는 상주를 비롯한 문경, 예천, 풍기, 의성 등이 속한다. 이 지역의 유학은 퇴계학의 자장 속에 있다. 특히 류성룡에게서 정경세로 이어지는 학맥이 중심에 자리하고, 김성일에게서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맥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호학과 남명학

---

\*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 / jhchoo@kmu.ac.kr

의 소통 또한 열려 있기에 다양한 학문이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한강 문인은 모두 18명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정구의 문하에만 나아간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파에 출입하며 학문적 교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의 학문에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회통성과 실천성이 공유되면서 서애-우복학맥의 호상학적 색채에 敬學으로 대표되는 심학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 주제어

---

한강 정구, 상주권, 한강 문인, 회통성, 호상학, 敬學

## I. 들어가며

‘寒岡學’, 즉 정구의 학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sup>1)</sup> 그의 학문 체계와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것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정체성 해명을 위한 고심의 흔적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이제 어느 정도 퇴계학과 남명학의 자장 속에 ‘統合’ 내지 ‘會通’의 학문적 흐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정구의 문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그의 문인록인 『檜淵及門諸賢錄』에는 342명의 문인이 확인된다.<sup>2)</sup> 이들은 성주와 대구를 비롯한 안동, 경주, 진주, 서울 등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이는 당대 한강학파의 규모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한편, 이 학파의 특징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확산에 따른 문인들의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을 의미한다. 즉 이들이 공유한 문제의식과 지역적 편차에 따른 대응의 차이를 살피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중심 거점이었던 성주, 대구, 칠곡 등 일부 지역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성과 또한 없지 않았다.<sup>3)</sup> 특히 한강학파의 전개 및 연계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사상적 특징이 중

1) 남명학연구원 편,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홍원식 외, 『조선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한강학연구원 외 편, 『한강 정구와 무흘문화』, 역락, 2018;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3; 장윤수 외, 『대구권 강안학과 한강학파』, 역락, 2024.

2) 김학수, 「한강학파의 형성과 전개」,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136쪽.

3) 정우락, 「성주지역 도학의 착근과 강안학파의 성장」, 『영남학』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김학수, 「이천배, 천봉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역할과 위상」,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최은주,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장인진,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 『영남학』 8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3; 장인진, 「동호 이서의 생애와 한강학과 활동」, 『영남학』 9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4.

요하게 검토되곤 했다. 그 결과 ‘회통성’과 ‘실천성’, ‘자득성’과 ‘독창성’ 등이 부각되었다. 대체로 낙동강 중류 지역 유학의 특징을 공유하는 바, 퇴계학과 남명학, 영남학과 기호학의 개방적 성격을 ‘회통성’으로, 의병 활동과 향약 시행 등 배움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천성’ 내지 ‘실용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도를 깨닫는 학문 방법을 ‘자득성’으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독창성’으로 규정했다.<sup>4)</sup>

흔히 ‘학’적 규정이란 그 학문이 가진 고유한 지향성에 기초한다. 여기에 ‘회통성’은 공감되는 바가 있으나 나머지 특징들은 유학의 본령과 다르지 않거나 한 학파의 학문에 한정하는 데 주저되는 바 없지 않다. 그렇기에 이것만으로는 그 전모를 파악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제한된 지역과 문인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특징이 과연 ‘한강학’의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상주권 한강 문인들의 학문과 사상을 시론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상주권은 흔히 상주, 문경, 예천, 풍기, 의성 등을 포괄하며, 이들 지역은 퇴계학의 영향권 아래 류성룡의 서애학맥과 이상정의 대산학맥이 혼재되었던 곳이다. 여기에 정구의 한강학맥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분포와 사상적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제출된 한강학의 특징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에 한강학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II. 상주권 유학의 전통

嶺南은 죽령과 조령의 남쪽을 지칭한다. 이 지역은 1314년부터 경주

---

4) 장운수,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 심산, 2021, 32~45쪽; 정우락, 「낙동강의 서원과 ‘한강학풍’」, 『유교사상문화연구』 95, 한국유교학회, 2024.

와 상주를 합해 慶尙道로 부르게 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이를 경주부, 안동대도호부, 상주목, 진주목으로 나누었다. 성종 때에는 대구도호부, 김해도호부가 성장하여 여섯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다 고종 때에는 진주부, 동래부, 대구부, 안동부로 나뉘었고, 1896년에 지금의 경상북도 와 경상남도로 양분되었다. 다만 서울에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로 나눈 것이 오랫동안 통용되었으며, 대시장권에 따라 다섯 권역인 안동권, 상주권, 경주권, 성주권, 진주권으로도 불렸다.

상주권은, 동쪽에 남북으로 종단하는 낙동강의 본류가 흐르고, 서쪽에는 소백산맥의 주맥인 속리산과 덕유산의 동쪽으로 험준한 산세를 형성한다. 이른바 東低西高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동쪽에는 洛江船遊가, 서쪽에는 洞天九曲이 발달했으니, 이는 소통과 공유의 경계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대개 상주, 문경, 예천, 풍기, 의성이 속하는 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sup>5)</sup>

상주권 유학은 기본적으로 퇴계학의 자장 속에 있었다. 류성룡에게서 정경세로 이어지는 서애-우복학맥이 터잡고 김성일에게서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봉-대산학맥이 그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과 산이 둘러싼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기호학과 소통의 길이 열려 있었고, 남명학 또한 공유되고 있었던 터라 다양한 학문들이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우선, 尙州의 유학은 柳成龍(西厓, 1542~1607)이 상주목사로 부임한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부임 전인 992년 상주에 향교가 설립된다. 이는 고려 전기 전국에 12牧을 두었는데, 상주에 목을 설치하면서 주와 군에 학사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고려말 安珦이 상주관관(1275)으로, 安軸이 상주목사(1343~1344)로 있었으면서 유학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1552년 상주목사 申潛(靈川, 1491~1554)이 관할 내에 18개의 서당을 건립했다.<sup>6)</sup> 그는 신숙주의 증손자로

5)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下』, 탐구당, 1973, 427쪽; 이중환, 노도양 역, 『擇里志』, 진명출판사, 1985, 97~103쪽.

6) 18개의 서당은 修善書堂, 白華書堂, 鳳巖書堂, 竹林書堂, 松岩書堂, 霞谷書堂, 首陽書

2년간 재직하면서 상주에 선비들이 강학할 공간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여 배움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1580년 류성룡이 상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전환을 맞이한다. 그는 이황의 고제로 무엇보다 지역의 학풍을 진작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선비의 풍습이 경박해지는 것은 어릴 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때문이며, 풍속이 무너지는 것은 향약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sup>7)</sup>라고 하면서 학문 장려와 향약 시행에 힘썼다.

더불어 류성룡은 퇴계학을 충실히 계승하여 마음의 실천 공부에 매진했다. 특히 ‘本心’에 主宰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욕의 제거를 통한 본성에 이르는 함양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는 주자학의 尊德性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평소 양명학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8)</sup>

이러한 그의 학문적 경향은 가학을 전수하면서 불교 등 異學을 접하는 데 구애되지 않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양명학은, 17세에 우연히 접한 『陽明集』이 계기가 되었으며, 盧守愼의 만남은 공감되는 바 있었다. 물론 30세 이후 주자학으로 전향하는 듯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하기도 하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양명학적 성향은 더욱 짙어진 듯 보인다.

---

堂[玉成書院], 智川書堂[淵嶽書院], 鳳城書堂, 瀛濱書堂, 龍門書堂, 梅嶽書堂, 石門書堂, 魯東書堂, 梧山書堂, 孤峰書堂 등이다. 현재 이 중 용문서당 이하 세 곳은 터만 남아있고, 노동서당 이하 3곳은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며, 1곳은 어디인지 불명확한 상태이다.

- 7) 柳成龍, 『西厓先生年譜』 권1, “八年庚辰[先生三十九歲] … 嘗謂士習之渝, 蒙養之不正也, 風俗之壞, 鄉約之不行也.”
- 8) 금장태과 김용재는 양명학에 관심을 보이다 주자학으로 전회한 것으로 본 반면, 이수진, 권오영, 안영상은 양명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금장태, 「서애 류성룡의 철학사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5; 김용재, 「서애 류성룡의 양명학 이해와 비판에 관한 고찰」, 『양명학』 23, 한국양명학회, 2009; 이수진,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5; 권오영, 「서애 류성룡 경학사상의 심학적 성향」, 이성무 외, 『류성룡의 학술과 경론』, 태학사, 2008; 안영상, 「서애 류성룡의 양명학관에 대한 재검토」, 『양명학』 23, 한국양명학회, 2009.

이러한 그의 학풍은 상주목사로 있던 9개월의 짧은 시기에도 강학을 통해 많은 제자들에게 오롯이 전수되고 있었다. 이때 대표 제자로는 金弘敏(沙潭, 1540~1594), 金弘微(省克堂, 1557~1604), 李塤(月澗, 1558~1648), 李竣(蒼石, 1560~1635), 韓瑞(杜谷, 1562~?), 康應哲(南溪, 1562~1635), 鄭經世(愚伏, 1563~1633), 全湜(沙西, 1563~1642), 趙光壁(北溪, 1566~1642), 韓瑞(佳村, 1568~?), 黃紐(槃澗, 1578~1626), 黃時幹(七峰, 1558?~1642) 등이었다.

특히 정경세는 ‘西厓學’을 잇는 핵심적 위치에 있었고, 그는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런 연유로 기호의 金長生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그의 제자인 宋浚吉을 사위로 삼았을 정도로 학과 간의 소통에도 열린 자세를 취했다. 그럼에도 이황의 학설에 대한 계승의식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바로 ‘七情理發說’의 제기에 있는데, 이는 이황의 理發說에 대한 리 우위적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sup>9)</sup>

한편 정경세는 1599년 향내 유림들과 함께 의료기관인 存愛院을 설치하고 운영했다. 여기서 ‘존애’란 “남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둔다[存心愛物]”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으며, 처음에는 의국으로 시작했으나 차츰 향촌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그는 1606년 道南書院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의 東方五賢을 제향함으로써 도통의식을 분명히 했다. 이어 13개의 서원이 더 건립되었다.<sup>10)</sup>

이러한 정경세의 학문과 실천은 류성룡의 3남인 柳軫(修巖, 1582~1635)을 통해 그의 손자인 鄭道應(無忝齋, 1618~1667)으로 이어진다. 정도응은 鄭杔의 아들로, 鄭宗魯(立齋, 1738~1816)의 고조가 된다. 정

9) 이상하, 「한국 성리학 칠정리발설의 계보 상에서의 응와 이원조」, 『퇴계학과 유교문화』 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74~79쪽.

10) 13개 서원은 다음과 같다. 興巖書院(1702), 玉洞書院(1580-白玉洞影堂, 1714), 玉城書院(1551-首陽書堂, 1631), 孝谷書院(1685-世德祠, 1735), 鳳山書院(1551-鳳山書堂, 1708), 臨湖書院(1590-儉巖書院, 1693), 淵巖書院(1551-智川書堂, 1702), 淸巖書院(1752-景賢祠), 洛岳書院(1796), 鳳崗書院(1817-敬德祠), 西山書院(1708-顯忠壇, 1713), 道安書院(1783-道安祠), 長川書院(1742-升谷里追遠堂).

도응이 류진의 딸과 혼인하여 학맥과 함께 혼맥으로도 이어져 鄭錫僑, 鄭胄源, 鄭仁模를 거쳐 정종로에 이르게 된다.

정종로는 어릴 때 숙부인 鄭義模(滄州, ?~?), 鄭智模(秋澗, 1716~1776)를 통해 가학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26세 때 黃啓熙(審幾堂, 1727~1785)에게서 배웠다. 그의 학문이 이때 계발된 것이 많았다고 한다. 40세 때 ‘嶺南三老’라고 하는 朴孫慶(南野, 1713~1782), 李象靖(大山, 1711~1781), 崔興遠(百弗庵, 1705~1786)을 찾아 가르침을 구했는데, 특히 이상정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이상정은 ‘小退溪’로 불릴 정도로 이황의 적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외조부인 李裁를 통해 김성일로부터 張興孝, 李玄逸로 이어지는 학적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이의 학설에도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회통적 전통은 이후 문인 남한조에 이어 柳致明으로 연결되는 학맥과 문인 김굉은 증손인 김도화에 이어 유인식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형성한다.

이러한 주맥에 이어 정종로를 통해 또 다른 학맥이 형성되었던 바, 그의 대표 제자로는 李源祚(凝窩, 1792~1871), 柳尋春(江臯, 1762~1834), 南漢皐(誠齋, 1760~1821) 등이 있었다. 이들은 또한 각기 다른 학적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원조는 유치명의 문하에도 출입했고, 이후 李震相, 郭鍾錫, 金昌淑으로 이어진다. 류심춘은 류진의 6대손으로 가학을 전수했으며, 아들 柳厚祚와 손자 柳疇睦으로 이어진다. 남한호는 남한조, 정종로, 이상정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평생을 성리학 공부에 몰두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홍원, 박손경, 김종덕, 류장원, 안정복, 유치명 등 당대의 여러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다. 이러한 학풍은 黃喜의 후손인 黃源善(藏園, 1798~1873)으로도 이어진다.

한편 이만부는 이조판서를 지낸 李觀徵의 손자이자 이조참판을 지낸 李沃의 아들이다. 외고조가 李睟光이며, 처증조가 류성룡이다. 그는 가학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허목의 문하에서 본격적인 학문을 시작했다. 26세 때 과거를 그만두고 학문에만 전념할 결심을 한 뒤 34세 때 둘째 부



인의 고향인 상주부 동쪽 노곡리로 내려온다. 그는 이곳에 息山精舍를 짓고 평생 학문에 전념한다. 성리학, 예학과 관련된 『道東編』, 『四禮綜要』 등 여러 저작을 남겼고, 『萬東祠議』를 지어 만동묘에 명나라 신종 황제와 제후국의 신하 송시열을 함께 배향하는 것을 비판함으로써 기호 노론들과 대립한다. 그리고 그는 남인인 이현일, 정시한, 허목, 홍우원, 이익과 그의 형인 이잠과 이서 등 여러 인물과 교유했다. 그는 남명학의 본산인 덕천서원의 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노론계 조현명과도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전자의 일은 그의 5대조 이주가 조식의 문인이었고, 고조 이창정 형제가 복인이었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했던 바, 이는 1785년 蔡濟恭이 덕천서원의 원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聞慶의 유학은 근암서원이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원래 이곳은 조선 후기 행정구역으로 상주목에 속했던 터라, 앞서 언급한 신잠이 세운 죽림서당이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1593년에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65년 洪彦忠을 제향하면서 향현사로 이어졌고, 이후 1669년에 李德馨을 병향하면서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여기에 1693년 金弘敏과 洪汝河(木齋, 1620~1674)가, 1786년 李渠(活齋, 1613~1654), 李萬敷(息山, 1664~1732), 權相一(淸臺, 1679~1759)이 추가 배향된다.

홍여하는 洪貴達의 5대손이자 의병장 高敬命의 외증손이다. 선대는 군위에 있었으나 홍귀달 대부터 문경의 율곡리를 세거지로 삼았다. 그는 아버지 洪鎬(無住, 1586~1646)가 정경세의 제자였던 터라, 자연스레 류성룡의 학맥을 잇게 되었다. 더불어 정도응의 부친인 정심이 홍호에게 배웠고, 정도응의 둘째 아들인 錫玄이 그의 사위가 될 만큼 두 집안이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장인인 金燧가 김성일의 증손이라 이휘일, 이현일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또한 그는 정구와 장현광의 문하에 있었던 허목과 김응조에게도 배움을 청했고, 서울에 있을 때는 이식, 조정 등과도 교유했다.

이구는 全州李氏로 효령대군의 8대손이다. 부친은 공조정랑을 지낸

11) 김학수(2015), 30~32쪽.

李光治이고, 모친은 黃時幹의 딸인 長水黃氏이다. 태어난 곳은 충북 괴산이나 부친을 따라 서울에서 자랐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 과거를 단념하고 외가가 있는 상주목 산양촌[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으로 옮겨 살았다. 이곳에서 학문에 심취했는데, 특히 성리학에 전념하여 이황의 학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이와 장현광의 학설을 비판했다.

또한 홍여하, 권구, 남형회, 한국창, 李埰(1616~1684), 申碩蕃(百源, 1596~1675) 등과 교유했다. 권구와는 사돈 간으로 이구의 둘째 아들인 이주만이 권구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권구의 증손자가 권상일이다. 이채는 이언적의 현손이며 진식의 손녀사위가 된다. 신석번은 정경세와 이준의 문인으로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과 가까이 지냈다. 또한 그 문하에 황시간의 손자인 黃尙中(愚谷, 1619~1680)이 있었는데, 서인인 閔鼎重(老峰, 1628~1692) 형제와 돈독한 사이였다.

권상일은 권대기의 6세손으로, 조부는 權以僞이다. 그는 상주목 산양현 근암리[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에서 태어났다. 1710년 과거에 합격하여 승문원부정자, 예조좌랑 등을 역임했고, 1728년에 이인좌의 난에 공을 세웠다. 그는 1732년에 도산서원 원장을 맡았고, 『退溪言行錄』에 교열 및 간행을 맡을 만큼 영남 남인 내에서 그의 입지가 높았다. 1748년에 좌부승지를 끝으로 사직한 후, 그는 학문에 전념하여 상주의 임호서원과 도남서원 등에서 강론하며 많은 인물들과 교유했다. 남인으로는 이현일, 이재, 이만부, 권두경을 비롯해 고명부, 김성탁, 박민효, 오상원, 황익재, 김낙행, 이상정 등이 있었다. 또한 강박, 강필경, 이광덕 등 소론계 인물들도 있으며, 특히 근기 남인인 이익의 경우는 편지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인 논쟁을 진행했다.

醴泉의 유학은 안동과 상주의 접경지역으로 퇴계학이 강했다.<sup>12)</sup> 인적으로 이황의 외가가 여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친척들이 터를 잡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황의 문인들이 예안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비

12) 장운수, 「예천지역 성리학계의 지형도 -16~17세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정우락, 「16세기 예천지역의 학풍과 약포정탁」, 『영남학』 8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4.

중을 차지했다. 이 지역의 대표 인물로는 윤상과 권문해, 정탁을 들 수 있다. 尹祥(別洞, 1373~1455)은 정몽주의 제자인 趙庸(松亭, ?~1424)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당시 조용은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하여 예천에 낙향해 있었던 터라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후 金叔滋에게 『주역』을 가르쳤다고 하며 이는 김숙자의 아들인 김종직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니, 이들을 통해 영남 사림의 또 다른 학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權文海(草澗, 1534~1591)는 주로 가학을 계승했는데, 김종직의 문인인 증조부 권오복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이황의 문하에 나아가 배움을 이어갔으며, 이황 사후 안동부사로 스승의 현창 사업에 앞장섰다. 그는 성리학 이론보다는 현실과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상당히 개방적인 학문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퇴계학만을 고수하지 않고 서경덕의 기론 등 다양한 학문을 수용한 데에 유리했다.

한편 鄭琢(藥圃, 1526~1605)은 동문인 류성룡과 함께 평생을 관직에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광개우 등 국난의 상황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17세 때 이황의 문하에 나아갔고, 36세 때에는 조식과 사제의 연을 맺었는데, 진주향교의 교수로 부임할 때였다. 이때 그 문하에 있던 김우옹과 오건 등과는 평생의 교우로 지냈다. 학문에서도 경사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상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이 관직에 있을 때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義城의 유학은 안동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퇴계학의 다양한 흐름들이 혼입되어 있다. 우선 이황의 문인으로 申元祿, 黃瑋, 金士元, 朴濟, 金箕報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어 류성룡의 제자인 金兌의 후손들이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 세거했으며, 정구의 제자인 權守經, 장현광의 제자인 申達道, 申弘望, 申埰, 申適道, 金光岳, 金致寬, 任景尹, 李俊成, 李山漢 등이 이곳 출신이다.

한편 金宗德을 중심으로 대산학맥이 전파되기도 했다.<sup>13)</sup> 김종덕은 金方慶의 후손으로 류성룡의 외조부인 金光粹의 10세손이자 이황의 문인

인 김사원의 6세손이기도 하다. 이상정의 문하에서 정종로, 이종수와 湖門三宗 또는 유장원, 이종수와 湖門三老로 불릴 만큼 高足이었다. 그의 동생인 중경, 중발, 중섭 모두 이상정의 문하에서 배웠다. 그는 36세 때 별과 향시에 합격했으나 “입신출세를 위한 과거 공부는 사람의 본심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했다. 이후 스승을 따라 학문의 도를 구했으며, 특히 『心經講錄刊補』 편찬에 동생들과 함께 힘을 보탰다. 그리고 문인 이종수, 유장원, 柳道源, 정종로, 李萬運, 남한조, 채제공, 趙述道 등과 교유하며 스승 사후 문집 등 유업을 정리하고 강학을 여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64세에 孺子亭을 지어 저술과 후진 양성에 힘썼는데, 이때 대표 제자로는 정박, 이야순, 정필규, 권득인, 서활, 이병운, 이병원, 류승조 등이 있다.

### Ⅲ. 상주권 한강 문인들

『회연급문제현록』에 따르면, 상주권 한강 문인은 모두 15명이다. 상주에 8명, 의성에 4명, 예천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주 문인은 鄭允諧(鋤歸子, 1553~1618), 趙靖(黔澗, 1555~1636), 李塤(月澗, 1558~1648), 黃時幹(七峰, 初名: 黃廷幹(道川, 1558~1642), 鄭經世(愚伏, 1563~1633), 金廷堅(菊園, 1576~1645), 全以性(雲溪, 1578~1646), 黃紐(槃澗, 1578~1626)이며, 의성 문인은 申之梯(梧峰, 1562~1624), 申適道(虎溪, 1574~1663), 權守經(自樂堂, 1584~1659), 金尙瑗(南厓, 1598~1687)이다. 예천 문인은 鄭允偉(東湖, 1564~1605), 鄭允穆(淸風子, 1571~1629), 鄭時亨(花坪子, 1585~1646)이다.

여기에 상주 문인으로 조정의 동생인 趙翊(可畦, 1556~1613), 김정견의 형인 金廷龍(月潭, 1561~1619)을, 예천에는 鄭榮後(梅塢, 1569~

13) 추제협, 「친사 김종덕의 생애와 거경궁리설」,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2020, 246~252쪽.

1641)를 추가해야 한다. 이들은 비록 문인록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문집에 있는 「행장」과 「연보」, 「만사」 등의 기록에 사제 관계가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대의 내력과 혼인맥 등을 통한 충분한 개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sup>14)</sup> 그럼, 이상 18명 중 대표 문인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윤해<sup>15)</sup>는 鄭僑의 후손으로, 부친은 鄭璉이고 모친은 權宗憲의 딸인 安東權氏이다. 鄭琢의 장조카이며, 조목과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조목에게는 『근사록』 한 질을 받아 직접 註와 따를 붙이며 종신토록 익숙히 하는 데 힘썼다고 하며, 정구에게는 爲己之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다.<sup>16)</sup> 이때 정경세, 吳允謙, 金垚, 홍호 등과 도의지교를 맺었다. 이후 정구의 추천으로 陵司와 齋郎에 연이어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했다. 임진왜란 때 상주의진에 文書有司로 참여했으며, 정유재란 때 태조의 영정을 무사히 보관한 공로로 原從勳三等에 봉해졌다. 그러나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는 정치적 혼란을 피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조정과 조익 형제는, 부친이 趙光憲이고 모친은 洪胤崔의 딸인 南陽洪氏로, 그 사이에 4남 중 첫째와 둘째이다. 조정<sup>17)</sup>은 1560년 정구의 문하에서 공부했다.<sup>18)</sup> 당시 『소학』과 『심경』 등을 받아 向裏之學에 몰두했다고 한다. 이어 1562년에 金克一의 딸과 혼인한 인연으로 김성일의 문하에서 『朱子書節要』를 배웠다고 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權景虎, 정경세, 李弘道 등과 함께 함창의 黃嶺寺에서 의병을 결성하는 데에 참여하여 참모와 서기를 맡게 되었다. 또한 그는 1605년 과거에 합격한

14) 조위는 『可畦先生文集』 권6, 「年譜」에, 정영후는 『梅塢先生遺稿』 권2 「家狀」, 권4 「拾遺」에서 확인되며, 김정룡은 김학수, 「남명·퇴계학의 교차와 절충 -월담 김정룡과 국원 김정건 형제의 삶과 학문」, 『청계사학』 22, 청계사학회, 2020, 103쪽 참조.

15) 鄭允諧, 『鋤歸子先生遺稿』 권2, 「附錄, 鋤歸子先生鄭公行狀」.

16) 鄭允諧, 『鋤歸子先生遺稿』 권2, 「附錄, 鋤歸子先生鄭公行狀」, “從月川趙先生學, 先生亟加獎許, 稱以恬靜之士, 授近思錄一帙, 公敬受之, 手加註吐, 終身誦. 又遊寒岡鄭先生之門, 得聞爲己之學.”

17) 趙靖, 『黔澗先生文集』 권3, 「年譜」; 권4, 「附錄, 行狀[李光庭」.

18) 趙靖, 『黔澗先生文集』 권3, 「年譜」, “四年庚午[先生十六歲]受學於寒岡鄭先生門.”

이후 사헌부장평을 시작으로 예조좌랑, 대구판관, 해남현감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 때는 잠시 낙향했으나 인조반정 이후 김제군수로 다시 등용되었다. 1624년에 이괄의 난 때 임금을 공주까지 호종했으며, 1626년 형조정랑, 사섬시정 등을 거쳐 奉常寺正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겪은 일을 기록한 일기인 『임진일기』, 『남행록』, 『진사록』 등의 문헌이 전한다.

동생 조익<sup>19)</sup>은 1571년 조부의 명으로 정구의 문하에서 공부했다.<sup>20)</sup> 그 또한 형처럼 『소학』과 『심경』 등을 힘써 공부하여 학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1588년 과거에 합격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은 속리산에서 의병부대인 충보군을 결성하여 참모를 맡았다. 1599년에 진주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601년에는 체찰사 이덕형의 종사관으로 활동했다. 1589년에 시작된 기축옥사 때 최영경을 무고한 정철의 일을 문제 삼다 선조의 노여움을 받아 공주로 유배되었다. 1609년에 해배된 이후 1610년에 慶尙道都事, 양산군수에 제수되었다. 그 또한 임진왜란의 기록인 『辰巳日記』를 남겼고, 1599년 陳奏兼賀至使書狀官으로 북경을 다녀온 기록인 『朝天錄』, 1601년 체찰사 이덕형의 종사관으로 영남을 다녀온 기록인 『嶺南錄』 등이 전한다.

이전<sup>21)</sup>은 李兆年의 후손으로, 부친은 李守仁이며, 모친은 申守涇의 딸인 高靈申氏이다. 1580년 그는 동생 李竣과 함께 류성룡의 문하에 나아가 『주자서절요』를 힘써 배웠는데, 이때의 인연으로 평생 주자학에 몰두했다. 이후 정구의 문하에서도 수학했다. 1603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 학행으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세마, 평릉도찰방, 지례현감 등을 역임했다. 상주 유림의 대표로 1608년 동방오현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상소의 疏首로 추대되었으며, 존애원 설립에 관여했다. 류성룡의 문집 간행을 주관했고, 1632년 말년에 棣華堂을 지어 정경세, 조정 등과 교유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황시간<sup>22)</sup>은 황희의 7세손으로, 부친은 黃斌이며, 초명은 廷幹이었다.

19) 趙翊, 『可畦集』 권6, 「附錄, 年譜」; 「附錄, 行狀」[李承延].

20) 趙翊, 『可畦集』 권6, 「附錄, 年譜」, “[先生十六歲]以直長公命, 受學于寒岡鄭先生門.”

21) 李典, 『月澗先生文集』 권4, 「附錄, 行狀」.

그는 1580년(23세)에 당시 상주목사로 있던 류성룡에게 수학했다. 이때 류성룡은 그의 시를 “清麗하고 자법이 適婉하여 시를 지음에 늘 귀신과 통하는 재주를 지녔다”<sup>23)</sup>라고 칭찬했다. 이어 정구의 문하에서 정주의 글로 강학하여 위기지학을 핵심으로 이치를 통달하고 쌓은 경륜을 발휘 하도록 했다.<sup>24)</sup> 1629년 진사시에 합격했고, 1667년에 淨友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학문에 전념했다. 1624년 이괄의 난 때 이원익의 추천으로 東氷庫別提에 제수되었다. 이어 상서원부직장, 사헌부감찰, 형조좌랑, 삼가현감 등을 역임했다. 1629년에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 서재에서 『심경』과 『근사록』 등을 읽으며 지냈다. 정경세, 전식, 이준과 교유했는데, 이들을 ‘商山四友’라고 부른다.

김정룡과 김정균<sup>25)</sup> 형제는, 부친 金聘壽(西溪, 1535~1603)와 모친 曹夢吉의 딸 昌寧曹氏 사이에 5남 중 맏이와 막내이다. 김담수는 성주목 윤동[현,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에서 태어나 창녕조씨와 혼인하면서 처부 曹夢吉을 통해 남명학과 인연을 맺는다. 그러다 성주교수(1555)였던 吳健과 성주목사(1560~1563)였던 黃俊良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동향이었던 김우옹, 정구와 교유했기에 퇴계학과도 연결되었다.<sup>26)</sup> 1597년 정유재란 때 예안으로 피난을 가서 어머니가 죽자 상주시 중동명 죽암리에 정착하게 됐다.

김정룡<sup>27)</sup>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가학을 이어받아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여기에 부친의 인연으로 김우옹과 정구로부터 직접 학문을 배웠고, 이는 조목과 김부륜 등 퇴계학과 제현들의 학문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생 『소학』을 취해 그 의리와 핵심을 마음에 간직하

22) 柳成龍, 『西厓先生門賢錄』 권2, 「黃廷幹」.

23) 黃時幹, 『七峯遺稿』 권하, 「附錄, 年譜」.

24) 黃時幹, 『七峯遺稿』 권하, 「附錄, 年譜」.

25) 金廷龍·金廷堅, 『月潭菊園兩先生聯芳逸稿』.

26) 김학수(2020), 92~97쪽.

27)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3, 「附錄, 行狀」, “公自少嗜學, 既承受家庭之訓. 而是時如寒岡東岡月川雪月諸先生, 皆在近地, 蓋觀德心醉者又多. 故其律己治心, 動皆慕效, 閭當顛沛危亂之際, 而未嘗少輟其工.”

여 잠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sup>28)</sup> 1585년 과거에 합격하여 성균관학록을 시작으로 예안현감, 예조정랑, 병조정랑을 거쳐 영월군수, 풍기군수 등을 역임했다. 그 사이 1592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했으며, 1596년에는 예안현감으로 군량미 수송에 공을 세웠다.

동생 김정견<sup>29)</sup>은 형을 따라 가학을 이어받았고 이후 정구와 정경세를 스승으로 삼아 훈도받은 바 컸다고 했다.<sup>30)</sup> 특히 정구에게서 위기지학을 배웠다고 했다. 1612년 사마시에 합격한 뒤 과거를 포기하고 평생 학문 탐구에 힘썼다. 임진왜란 때에도 경전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후진 양성에도 노력했다.

전이성<sup>31)</sup>은, 부친이 全緯[全緯]이며, 모친은 秦浩의 딸인 永春秦氏이다. 그는 어릴 때 풍기군 노계리[현,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에 있던 韓山斗(秋月堂, 1556~1627)에게 배웠고, 이후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했다.<sup>32)</sup> 당시에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남과 다른 원대함이 있었다고 한다. 1606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예조좌랑, 병조좌랑 등을 역임했고, 광해군 때에 고향 예천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했다. 인조반정 이후 종부시정과 춘추관 편수관을 겸직하여 『光海君日記』 편찬에 참여했다. 1624년 이괄의 난 때 황해도 아사로 임명되어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1630년 용성에 유배되었고, 10년 뒤에 해배되어 고향에서 말년을 보냈다.

황뉴<sup>33)</sup>는 황희의 후손으로, 증조부가 황효현이고, 조부가 黃愷이다.

28)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3, 「附錄, 行狀」, “尤得力於小學書, 晚年至爲之繕寫一部而服膺焉.”

29) 金廷堅, 『菊園先生逸稿』 권2, 「附錄, 行狀」.

30) 金廷堅, 『菊園先生逸稿』 권2, 「附錄, 行狀」, “既承學於家, 又嘗師事寒岡及先愚伏兩先生, 薰陶成就蓋, 不淺鮮焉.”; 「附錄, 輓詞[申碩蕃]」, “岡翁函丈撫衣早, 愚老門兩牆見道明.”

31) 全以性, 『雲溪文集』 권2, 「附錄, 墓誌銘[井序]」.

32) 全以性, 『雲溪文集』 권2, 「附錄, 墓誌銘[井序]」, “公少學於吾先祖文莊公, 又遊寒岡鄭先生門.”

33) 黃紐, 『槃澗先生文集』 권4, 「附錄, 行狀」.



부친은 黃俊元이며, 모친은 閔師說의 딸인 驪興閔氏이다. 그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趙希轍의 딸인 豐壤趙氏, 李希閔의 딸인 延安李氏, 許樞의 딸인 陽川許氏, 韓璫의 딸인 淸州韓氏이다. 이른바 혼맥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넓혔다. 그는 10세 때 정경세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1613년 과거에 합격하여 승정원주서, 사헌부지평, 경성판관 등을 역임했다. 선조 황희를 제향한 백옥동영당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아들 黃德柔 또한 대를 이어 정경세에게 배웠으며, 기호 노론의 송시열, 송준길, 이서상 등과도 학문적 교류가 활발했다.

신지제<sup>34)</sup>는 고려 때 按廉使를 지낸 申祐(退齋, ?~?)의 아들 申光貴의 후손이다. 부친은 申夢得이며, 모친은 朴敏樹의 딸인 義興朴氏이다. 그는 1574년 이황의 문인인 金彦璣(惟一齋, 1520~1588)에게 배웠고, 김성일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김언기는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이 아이는 언행이 공손하고 진중하며 학문에 독실함이 또한 이와 같으니, 훗날 반드시 큰 인재가 될 것이다”<sup>35)</sup>라고 칭찬했다. 이때 金垓(近始齋), 崔峴(訥齋), 權泰一(藏谷), 金涌(雲川) 등과 교유하게 된다. 그리고 1584년 趙旅의 후손인 趙址(望雲亭, 1541~1599)의 딸 咸安趙氏와 혼인하게 되면서 처가의 여러 학자들과도 교유했다. 가령, 조지의 아들인 趙亨道(東溪, 1567~1637), 趙純道(南浦, 1573~1653), 趙遵道(方壺亭, 1576~1665), 趙東道(芝嶽, 1578~1668)를 비롯해 趙鵬(1534~1598)과 그의 조카 趙凝道(1555~1597), 趙宗道(1537~1597) 등이다. 이 중 조형도는 퇴계학과 남명학을 아우르는 인물로, 吳灃(竹牖, 1540~1617)의 사위이고, 오운의 장인 許士廉은 이황의 큰 처남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정구의 문하에서 배우고 이어 장현광을 따라 배움을 청하기도 했다.<sup>36)</sup>

34)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권2, 「申之悌」; 申之悌, 『梧峯先生文集』 권7, 「附錄上, 有明朝鮮國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梧峯申先生行狀」; 『梧峯先生別集』, 「梧峯先生年譜」.

35) 申之悌, 『梧峯先生別集』, 「年譜」, “此兒謹重篤學又如此, 他日必成大器也.”

36) 『梧峯先生文集』의 서문을 쓴 이광정은 신지제가 퇴계학을 계승한 것으로 서술했다.

한편 신지제는 1589년 과거에 합격하여 사섬시 직장, 성균관 전적을 거쳐 성균관직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예안현감으로 있을 때는 늘 도산 서원을 왕래하며 당시 이황의 원로 문인인 조목, 김부륜, 이덕홍, 금난수 등과 교유하며 정무를 협의하거나 경전을 강론하곤 했다. 임진왜란 때 예안, 안동의 겸관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구휼에 힘썼으며 함양 화왕산성에서 객재우와 동맹 창의했다. 전란이 끝나고 창원부사로 재직할 때 정구가 머물렀던 觀海亭을 중수하고 이에 대한 시를 남겼으며, 이윤우와 함께 정구를 모시고 유람하기도 했다. 또한 명의 화적 정대립 등을 잡은 공로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이후 낙향하여 1610년 藏待書院을 지어 인재 양성에 전념했다.

신적도<sup>37)</sup>는 申光富의 후손으로, 조부는 申元祿이다. 신광부의 두 아들이 申士廉과 申士贊이며, 이 중 언양현감을 지낸 신사렴의 현손이 신원록이다. 부친은 申佐이며, 모친은 朴倫의 딸인 順天朴氏이다. 동생은 申達道, 申悅道이다. 조부 신원록이 이황의 문인이었던 인연이 그에게로 이어져 25세 때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임란을 겪고 난 후 위기치학에 뜻을 두어 정구에게 나아가 연원이 있는 학문을 배웠다고 하면서 “義理之辨과 名實之分을 듣고 우리의 학문에 내외와 대소의 구별이 있는 것을 대략 엿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sup>38)</sup> 이후 그는 정구를 주자와 퇴계의 적전이며 우리의 도맥을 잇는 인물로 여겨 존송했다.<sup>39)</sup> 이어 30세 때 장현광이 의성에 부임한 계기로 그 문하에 나아가 배움을 청했다. 그는 장현광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물음을 질의하여 칭찬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또한 신적도는 1606년 진사시에 합격한 후 1627년 정묘호란 때 의병

申之梯, 『梧峯先生文集』, 「梧峯先生文集序[李光庭]」.

37)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권3, 「申適道」;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권5, 「附錄, 行狀」.

38)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권5, 「附錄, 遺事」, “府君備經大亂, 猶留意於爲己之學, 就寒岡鄭先生, 而得聞淵源之學.”; 권1, 「書, 上寒岡鄭先生」, “亦與聞於義理之辨, 名實之分. 而粗有管窺於吾人事業之, 有 內外大小之別者, 此莫非十數年提擲警責之賜, 而常患見之未的體之未切.”

39)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권1, 「詩, 寒岡先生輓」, “嫡傳退老心, 梧解晦庵帙.”

모집에 참여했고, 화의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祥雲道察訪에 제수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의성 의병장으로 활약했으며, 화의를 물리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며 “화의를 배척함이 당당한 일임을 알 텐데, 어찌 화의하여 그 반대로 하였는가. 진실로 오랑캐 겁내어 화를 토로한 것일 뿐이니, 거꾸로 매달아 값을 매기는 데에 먼저 부합하려는 것과 같네”<sup>40)</sup>라고 읊었다. 말년에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의 학소대에 採薇軒을 지어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春秋』를 읽으며 슬프고 한스러운 뜻을 기탁했다고 한다.

권수경<sup>41)</sup>은, 부친이 의성 수성장으로 활약한 權希舜이다. 그는 15세 때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특히 詞章學에 뛰어났다.<sup>42)</sup> 정묘호란 때 장현광의 천거로 의성 의병장 겸 좌도 의병도유사로 활동했다. 병자호란 때에도 의병장으로 참여했으나 청나라와 강화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은거했다. 영귀서당을 재건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송시열이 그의 행적을 특계로 올려 嘉善大夫 同知敦寧府使에 추증되었다.

정윤위와 정윤목 형제는 鄭顥의 후손이다. 부친은 정탁이며, 모친은 潘冲의 딸인 巨濟潘氏이다. 그 슬하에 3남을 두었는데, 정윤저, 정윤위, 정윤목이다. 정윤위<sup>43)</sup>는 3세 때 『十八史略』을 외웠고 16세 때 향시에 합격했으나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이후 류성룡과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특히 그는 정구에게서 학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스승의 예학이 공자에 이르러 더욱 빛난다고 칭송했다.<sup>44)</sup> 임진왜란 때 모친을 모시고 襄陽[예천]의 高坪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부친은 늘 그의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면서 ‘敬’으로 자신을 성찰하도록 당부했는데, 그는 이를 잊지 않고 면려했다.<sup>45)</sup> 여러 차례 郵

40)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권1, 「疏, 請斥和疏[丙子]」; 권1, 「詩, 廣陵城吟示同義諸公」, “斥和認是堂堂事, 胡爾講和相反之. 寔出恟夷抒禍耳, 倒懸賈喻先符之.”

41) 權守經, 『自樂堂先生遺集』 권2, 「附錄, 遺事」; 「附錄, 行狀」.

42) 權守經, 『自樂堂先生遺集』 권2, 「附錄, 行狀」, “旣冠受業於寒岡鄭先生之門, 文學詞章出於輩流.”

43)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권2, 「鄭允偉」; 柳成龍, 『西厓先生門賢錄』 권3, 「鄭允偉」.

44)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권2, 「鄭允偉, 輓先生詩」.

館[察訪]에 제수되었고, 만년에 主簿에 임명되었으나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이어 湖山에 기거하면서 스스로를 ‘東湖主人’이라고 칭했다.

동생 정윤목<sup>46)</sup>은 어릴 때 가학을 전수한 이후 1588년 정구와 류성룡 문하에서 수학했다. 성리학의 은미한 말과 심오한 뜻에 밝았으며, 시문을 비롯해 예학, 병법, 백가 등에도 두루 통했다.<sup>47)</sup> 또한 그는 필법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다. 정구가 글씨를 부탁하여 「屏風八帖書」를 올린 일이 전한다.<sup>48)</sup> 1589년 부친이 謝恩使로 가는 길에 동행하여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616년에 천거로 召村道察訪에 제수되고 1618년 通訓大夫에 올랐다. 광해군 때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자 이에 실망하여 사직하고 말년에 예천의 노곡에 머물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는 스승 정구의 죽음에 “인간 세상에 砥柱 꺾이고, 천상에는 별자리 떨어졌네”라고 하면서 “삼천삼백 가지의 의례를 누가 전하리오”라고 하며 탄식했다.<sup>49)</sup>

이상에서, 상주권 한강 문인들은 이미 이황의 문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문파에 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류성룡에게서 정경세로 이어지는 서애-우복 학맥은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가학이나 훈맥을 통해 남명학과 기호학의 유입도 일부 확인된다. 여기에 한강학의 전래는 어떤 사상적 특징으로 혼입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5)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권2, 「鄭允偉, 墓碣銘[李象靖]」.

46)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권3, 「鄭允穆」; 鄭允穆, 『淸風子先生文集』 권4, 「淸風子先生年譜」.

47) 鄭允穆, 『淸風子先生續集』 권2, 「附錄, 行狀[金是瓚]」, “既天資超逸, 又從寒岡西厓二先生游, 大被器重. 凡性理淵源, 美辭奧旨, 他人不易會者, 輒迎刃而解. 諸子百氏, 以及陰陽卜筮兵家醫方說相談命之書, 亦靡不旁通.”

48) 鄭述, 『寒岡先生續集』 권8, 「書, 答鄭穆如」.

49)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권3, 「鄭允穆, 輓先生詩」, “吾宗老先生, 寒岡奄忽焉. 人間摧砥柱, 天上落星躔. 弟子失仁師, 邦家喪大賢. 三千與三百, 敢問更誰傳.”

#### IV. 한강 문인들의 학문과 사상

상주권 한강 문인들에게 류성룡의 ‘서애학’은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잇는 대표 문인인 정경세는 이상정의 문하에도 출입함으로써 퇴계학의 정맥을 오롯이 전수받은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가 제기한 칠정리발설은 이황의 리발설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학설은 理體氣用, 즉 천지의 조화는 리가 본이고, 기가 용이 되기에 사람의 성정도 리가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를 ‘理主氣資’로 본다면 칠정 또한 리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0)</sup>

사실 ‘리주기자’는, 리가 동정의 주재가 되고 기는 동정하는 바탕이 된다는 뜻으로, 리와 기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리에 동정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기에 제약되는 리도 아닌 것이 된다. 이는 리와 기의 관계인 不離와 不雜을 대등하게 보려고 하며, 사단과 칠정의 분별 또한 그 발함은 같으나 ‘主理’와 ‘主氣’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말하려는 것이다.<sup>51)</sup> 정경세는 비록 이상정의 ‘리주기자’를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전자를 의식한 의도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종로에게 이르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리발의 의미를 상쇄 및 통합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sup>52)</sup>

이러한 점은 공부론에도 연결된다. 정경세는 ‘존양’, 즉, 存心養性에 대해 기존의 주자학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주자학에서 존양은 省察과 구분하여 전자를 靜時에, 후자를 動時에 하는 공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보다 세밀히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존양이 동시와

50) 鄭經世, 『愚伏先生文集』 권11, 「書, 答曹汝益[癸亥]」, “喜之理在中, 故發而爲喜, 怒之理在中, 故發而爲怒, 無其理則何以發乎. 理爲之本而氣爲之用, 乃天地陰陽造化之妙, 七情何獨不然.” 이상하(2006), 74~76쪽.

51) 최정목, 「우복 정경세 성리설의 기본 입장과 율곡학 비판」, 『율곡사상연구』 14, 율곡학회, 2007, 108쪽; 나대용, 「대산 이상정의 리주기자와 혼론이분개」, 『동양철학연구』 73, 동양철학연구회, 2013, 182쪽.

52) 추제협,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 단설과 병설의 통합적 사유」,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120~123쪽.

정시를 겸하는, 이른바 統體의 공부라는 것이다.<sup>53)</sup> 이는 마치 이황이 경공부로 동정을 관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의 성찰을 부정한다기보다 동시에도 정시의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동하는 가운데 정한다[動中之靜]”는 뜻이 더 짙다. 이른바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가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sup>54)</sup> 이는 정구의 심학적 특징과 맞닿아 있는 바,<sup>55)</sup> 그의 학문은 이러한 구체성에서 비롯되며, 예학의 관심도 여기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이론적 천착보다는 실천적 측면에 무게를 두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는 마음과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며, 학문에서도 매우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게 된다. 여기에는 류성룡으로부터 이어진 학문적 전통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령 양명학에 대해, 류성룡은 “대개 굽은 것을 바로 잡으려다 곧음에 지나친 것 같다”<sup>56)</sup>라고 했다. 여기서 ‘굽은 것’은 “양명이 송나라 말기에 문장의 뜻이나 새기는 폐단을 구제하려고 오로지 본심만을 일삼을 것을 설파하였으나, 그 말류의 폐단이 도리어 문장의 뜻만 새기는 것보다 심함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sup>57)</sup>라는 말에서 “문장의 뜻이나 새기는 폐단”으로 본다면, 그는 구이지학의 폐단을 비판하고 실천적 학문을 강조하는 점에서 양명학과 공명되는 바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퇴계학맥은 道南學과 湖湘學의 전통이 공존하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도남학은 程頤의 제자인 楊時에게서 羅從彥, 李侗으로 이어지는 默坐澄心の 학문이라면, 호상학은 程顥의 제자인 謝良佐에

53) 鄭經世, 『愚伏先生文集』 권14, 「雜著, 金沙溪經書疑問辨論」, “然竊意分動靜是大綱說, 若細推之, 則存養實兼動靜. … 以此疑存養乃統體工夫.”

54) 장승구, 「우복 정경세의 철학과 경세론」, 『영남학』 5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10~12쪽.

55) 추계협, 「심경발휘와 정구의 심학」, 『한국학논집』 5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408~412쪽.

56)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15, 「雜著, 知行合一說」, “蓋矯枉而過直者也.”

57)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15, 「雜著, 王陽明」, “昔人見有困於火者, 卻教投水, 水火雖異, 而其爲殺人則同. 陽明欲救宋末文義之弊, 而專爲本心之說, 不知其流弊, 反有甚於文義也.”

게서 胡宏, 張栻으로 이어지는 察識端倪의 학문이다.<sup>58)</sup> 이황은 말년에 『심경부주』를 깊이 있게 탐구했고, 특히 ‘未發’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었다. 이때 그는 이동의 『延平答問』을 통해 ‘求中體認說’, 즉 미발 때 천리의 중을 체득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심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마음공부의 중심점을 미발에 두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sup>59)</sup>

그런데 문제는 주희가 이를 비판했다는 데 있다. 그는 이동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양시의 ‘구중’을 佛老의 논리라고 했다. ‘체인’이란 사고의 활동을 전제로 하기에 이미 이발의 성찰과 다르지 않으니 미발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 심을 미발과 이발로 엄격히 구별하고, 공부는 이발 때 찰식하는 데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호상학의 주장과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寂然不動’에 대해 호상학의 이발과 달리 미발로 본다는 점, 따라서 찰식의 방법 또한 심의 상태와 변화, 성의 단서와 확충으로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sup>60)</sup> 주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새로운 입장[中和新說]을 개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면 정리하면 이렇다. ①미발이란 이발이 아닌 평사시의 의식 상태를 말한다. ②심이 이발뿐만 아니라 미발에도 관련됨으로 미발에 지각이 없을 수 없으며 미발과 이발의 차이는 사려의 유무에 따른다. ③그렇기에 공부는 미발의 거경함양과 이발의 거경찰식 모두에 필요하다고 했다.<sup>61)</sup>

이황은 이러한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는 있으나 경중에 따라 미발공부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는 도남학의 구중설에 가까워진 반면 호

58) 주광호, 「중화신설, 방법에서 목적으로」, 『동양철학』 52, 한국동양철학회, 2019, 96쪽.

59) 추제협, 「이황의 사단칠정론과 마음공부」, 『안동학』 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149~152쪽.

60) 김기현, 「주자학의 미발 개념 정립 과정」, 『양명학』 44, 한국양명학회, 2016, 176~179쪽.

61) 김기현(2016), 180~190; 최진덕, 「주자학의 중화신설과 경의 공부론」, 『철학연구』 51, 철학연구회, 2000, 23~29쪽.

상학의 선찰식에는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달리 말하면, 현실의 왜곡된 상황에서 인간 본성의 단서를 찾아 이를 확충하기보다 그 드러나지 않은 인간 본성의 근원을 간직하여 잃지 않는 데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퇴계학의 전통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현일을 거쳐 권상일로 이어지는 흐름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학맥의 지역적 확산은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보다는 일정한 변모를 겪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서애-우복학맥은 그런 점에서 호상학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 한강학의 유입은 이런 특징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도 이발의 심학적 경향이 더욱 감미되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특징이 다른 한강 문인들에게서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성리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보다는 실천, 특히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방안을 중요하게 모색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편린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문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윤곽만 간략히 살피는 것으로 대신한다.

신적도는 성리설에 대한 글을 일부 남겼다. 다만 기존 학설에 대한 논쟁적 글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성리설을 간략히 정리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그의 생각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유학의 도통을 伏羲로 시작하여 堯舜과 禹湯, 文武와 周公에 이어 孔孟과 北宋五子を 거쳐 남송의 주희에 이른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이황에게 닿을 것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정이와 주희의 사이에 이동을 가교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sup>62)</sup> 퇴계학의 전통이 주자학을 계승한, 특히 도남학의 계승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전통은 聖學, 즉 “성인됨의 학문”을 말하며 ‘存天理遏人慾’으로 요약된다.

이를 신적도는 「無極而太極說」에서 주돈이의 “무극이태극”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단서를 보여준다.<sup>63)</sup> 즉 태극이 갖는 형이상학적인 면을

62)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권2, 「箴銘, 西壁銘」, “好學程氏訂頑橫渠皇極堯, 夫延平繼開紫陽集大講明, 斯道煥然千載.”

63)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권2, 「雜著, 性說」; 「雜著, 心說」.



무극으로 표현했을 뿐, 태극과 무극은 “하나의 진실된 리[一箇眞實之理]”라고 했다. 이러한 리는 ‘유’가 아닌 ‘무’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유학의 우주 발생론적 측면에서는 다소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그 ‘무’로 인해 所以然과 所當然의 이치가 있게 되었다고 본 바, 리가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인간의 당위 또한 여기에 근거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그리 다르지 않다. 다만 그는 후자, 즉 인간의 도덕이 태극에 근원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데, 이는 스승 장현광이 태극을 “도덕의 頭顱”로 표현한 것에 일정 부분 영향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64)</sup>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인간 心性의 의미뿐만 아니라 情, 志, 意의 분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먼저, 「性說」과 「心說」에서 심성의 내용을 보면, 그는, 심이 성과 지각이 합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이며, 지각은 이 천리를 품은 심의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심은 리와 기를 겸하고 있기에 寂과 感을 통해 동정과 체용을 갖추고 있으니 한 몸의 주인이자 수양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다만 심은 ‘活物’이라 寂然不動할 때에는 맑고 바른 것이 明鏡止水와 같으나 외물에 이르러 感而遂通할 때에는 몸 밖으로 날아오르고 내달리는 것이 마치 사나운 말이나 빠른 수레와 같아 그 응대하는 즈음에 천리와 인욕의 나뉘미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런즉, 신적도는 마음공부란 바로 이 가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회노애락의 발출과 인의예지의 단서, 이목구비의 욕구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그 마음의 주재를 잡아 잃지 않는 것이 전제됨은 분명하다. 다만 그는 마음이 발현한 이후의 성찰 또한 중요하게 여겼다.<sup>65)</sup> 그렇기에 정과 의, 지와 의에 대한 분별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64) 張顯光, 『性理說』 권3, 「太極說」, “愚今繼之, 曰太極者道德之頭顱.”; 장숙필, 「여현의 태극설에 나타난 도덕지향의식」, 『유교사상문화연구』 27, 한국유교학회, 2006, 123~130쪽.

65) 장숙필, 「호계 신적도의 의리사상과 그 사상적 토대」, 『동양고전연구』 33, 동양고전학회, 2008, 124~126쪽.

따라서 그는 이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한다.<sup>66)</sup> 즉 성이 길이고, 심이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 가는 길에 비유하면, ‘정’은 발이 움직여 길을 가는 것이라면 ‘지’는 발을 움직여 길을 가는 것이고, ‘의’는 길을 가는 데 몇 리를 갈 것인지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이 물이고, 심이 그릇이라고 할 때 그릇에 담긴 물에 비유하면, 정은 물이 그릇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라면, ‘지’는 물이 흘러나와 땅에 붓는 것이고, ‘의’는 땅에 부은 물이 혹 동쪽으로 흐르고 혹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는 ‘性發爲情’에서 정 자체가 불선한 것은 아니나, 이것이 발한 후 인간의 ‘의’와 ‘지’에 의해 선과 불선의 갈림이 있게 된다고 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의’이며, 마음의 수양은 바로 이 ‘의’의 문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이이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67)</sup>

다만 이러한 주장에도 여전히 미발의 마음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가법지 않다. 정윤목은 성선의 근원이 리에 있음을 재확인한다. 그는 「定凝吟」에서 “움직임이 멈추면 안정되고, 안정되면 기가 응집되니, 응집하기를 아득히 오래하면, 明德이 해 오르는 듯하리”<sup>68)</sup>와 「觀物吟」에서 “만물을 누가 부리는가, 술개 날고 물고기 연못에 뛰네. 조화의 이치 알아야 하니, 나의 천성 즐거움이 귀하다네”<sup>69)</sup>라고 하여 鳶飛魚躍으로 표현된 천리의 유행이 만물을 생성하니 인간의 선한 본성 또한 여기에 근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심성이 늘 물욕에 가려질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그럼 어떻게 이를 보존할 수 있는가. 그가 종형인 정윤해에게 보낸 시 「敬步宗兄鋤歸子韻」에서 다음과 같이 답한다.<sup>70)</sup> 즉, 물욕을 ‘뜯

66)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권2, 「雜著, 情意辨」; 「雜著, 志意辨」; 「雜著, 心性情志意辨」.

67) 김형찬, 『울곡이 묻고 퇴계가 답하다』, 바다출판사, 2018, 209~210쪽.

68) 鄭允穆, 『淸風子先生文集』 권1, 「詩, 定凝吟」, “動靜而歸定, 定而氣能凝. 凝而悠久, 明德若日升.”

69) 鄭允穆, 『淸風子先生文集』 권1, 「詩, 觀物吟」, “萬物誰驅使, 鳶飛魚躍淵. 須知造化理, 貴在樂吾天.”

70) 鄭允穆, 『淸風子先生文集』 권1, 「詩, 敬步宗兄鋤歸子韻」, “物欲似浮雲, 本心如日月.”

구름’에, 본심을 ‘일월’에 비유하여 물욕은 일시적으로 본심을 가리지만 본심의 환하고 깨끗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를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했는데, “푸른 소나무에 흰 눈이 깃들고, 찬 매화 나무에 밝은 달이 걸렸네. 이것을 마주하고 번뇌 씻는다면, 누가 맑은 풍골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여기서 푸른 소나무에 흰 눈과 찬 매화에 밝은 달은 고결한 자연의 표상이자 淸明하고 灑落한 心地를 표현한 것으로, 마치 氷壺秋月와 光風霽月을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이렇게 맑은 자연의 모습처럼 인욕을 제어하고 천리를 회복한 마음 상태, 이른바 존심양성의 함양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조정은 數柱, 즉 기둥을 헤아림에 비유하여 마음의 수양을 말하고 있다. 그는 십 년 동안 마음 수양을 위해 湯王의「盤銘」등 여러 선현의 가르침에 따라 존심양성과 格物窮理에 힘썼으나 그 뜻을 온전히 체득하기에 쉽지 않다며 다음의 사례를 들었다.

長廊의 사이에 앉아서  
늘어선 기둥들을 살펴보네.  
조용히 맑은 마음으로  
속으로 세어 보네.  
열이나 백이나  
하나에서 둘까지  
밝고도 의심 없이  
분명히 기억했다네.  
얼마 후에 다시 살펴보니  
갑자기 어긋나서 같지 않네.  
눈과 마음이 현란하여 안정이 안 되고  
생각이 더욱 번잡하여 착각이 되네.  
다른 이를 시켜서 보게 하니  
처음과 서로 합한 것을 알았네.  
어찌 저 기둥에 이 수만 있는지  
전과 후의 헤아림이 다르네.

屬長廊之間坐  
瞻列柱之森立.  
默然澄心  
數之以意.  
若十若百  
其一其二.  
灼乎無疑  
了若可記.  
俄諦審之至再  
忽參差而不一.  
眩心目而莫定  
思愈煩而愈錯.  
費聲言於代手  
驗與初而相合.  
何彼柱只有此數  
計前後之有異.

誰能修此心，明輝映淸骨”；“蒼松棲白雪，寒梅掛明月．對此滌煩心，誰能淸骨．”

이는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서로 얽혀 잘못됨을 깨달았네.  
마음이 텅 비고 밝아야  
실로 만물을 주재할 수 있네.  
저절로 그렇게 되는 지각에 맡기니  
참으로 오묘한 用事는 헤아릴 수 없네.

...

동정 사이에 하나의 敬으로 일관하여  
안과 밖이 모두 합당하게 하네.  
보지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마음이] 가고 발하는 바를 살피네.

...

마음은 본래 텅 빈 것  
일에 대응하여 자취 없네.  
마음을 잡는 요령이 있으니  
敬하는 바가 법칙이 되네.

...

是由誤用其心官  
悟把捉之為累.  
念方寸之虛明  
實主宰乎萬物.  
任自然之知覺  
信妙用之回測.

...

貫動靜於一敬  
合內外而交正.  
戒懼乎不觀不聞  
省察乎所之所發.

...

心兮本虛  
應物無跡.  
操之有要  
敬為之則.

...71)

조정은 行廊에 앉아 기둥의 수를 헤아려 보니 이전에는 분명했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아 다른 이에게 확인하니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이는 외물이 잘못된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어긋남이 감각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음을 알고, 마음의 주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마음의 본원을 함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여기에 그는 경공부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은 동정을 일관하니, 미발의 존양을 통해 이발의 찰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한강 문인들은 성리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펴지는 않았지만 서애학에서 한강학으로 이어지면서 도남학과 호상학의 전통이 혼입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주권 문인들에게는 마음의 미발과 이발에 모두 함양공부를 전제하되 이발의 성찰공부 또한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71) 趙靖, 『黔澗先生文集』 권1, 「賦, 數柱賦」.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관점은 상대적으로 현실적 문제에 좀 더 다가가는 계기로 작용했다.

신지제는 성리설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 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아마도 그의 오랜 벼슬 생활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런 점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오히려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지방 관료의 횡포로 인해 고을의 군정이 혼란함을 질타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군사와 백성의 고향 남김없이 짜내어	軍民膏血浚無餘
개와 이리가 물고 사나운 새가 덮치네.	狗噬狼吞鷺鳥攫.
대곤과 장두 차고 연포를 입고 와서	大棍杖頭練布來
밤낮으로 관청 뜰에서 탁탁 쳐대네.	日夜庭中聲啄啄.
밭도 팔고 집도 팔아 모두 넘기니	賣田賣舍盡歸輸
재물이 높은 산처럼 우뚝이 쌓이네.	積之峯嶺如山巖.
밭과 집이 다 없어지면 땀땀으로 달아나니	田舍盡後赤身走
황폐한 마을에 참새만이 날아갈 뿐이네.	但見荒村飛鳥雀. <sup>72)</sup>

이 시의 제목을 풀어 보면, 박씨 성을 가진 병마절도사가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리며 탐욕스럽게 하니 향원과 군정은 시신을 나르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 고을의 군정이 온 고을로 뿔뿔이 흩어져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죄악이 끝이 없기에 이를 개탄한 나머지 붓이 가는 대로 적는다는 말이다. 그 내용인 즉,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인재 등용의 폐단에서 드러나는 바, 영남의 절도사 대부분이 모질고 포악하여 악정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가문에 힘입어 얻은 자리에 지식과 염치, 용기와 책략도 없이 그저 권세만 믿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모습에 백성들의 고통은 극심해져 급기야 유랑의 길을 떠나니 마을은 황폐해지고 말았다고 한탄한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나 꿈에서 상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72) 申之梯, 『梧峯先生文集』 권5, 「龜堂漫錄, 兵使姓朴恃勢驕橫, 貪虐無狀, 鄉員軍正馱屍絡繹, 列郡軍丁合境流散邦紀解弛, 誅惡無期, 慨歎之餘, 信筆書之」.

더불어 격변의 시대에 현실의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전하기도 했다.<sup>73)</sup> 임진왜란 때 조정의 뜻과 달리 명나라가 일본과 화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표하거나 전란 이후 국토의 황폐함과 백성들의 고초를 전하면서 이를 근심하기도 했다. 정유재란 때에는 순찰사의 종사관이 되어 팔공산성을 지키고자 했던 관찰사 李用淳을 비롯한 의성현령 呂大老, 의흥현감 李大期, 경산현령 趙亨道 등과 합심했고, 이어 화왕산성을 방어하고 있던 곽재우와 동맹하여 의병 활동을 전개하면서 당시의 급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또한 이후 후금이 중국을 침탈한 대외적 변화에 대해 군신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이렇듯 그는 대외적 격변과 현실의 부조리,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직 관료의 무능함 사이에 안타까워하는 충정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sup>74)</sup> 그래서일까. 그가 시 창작에 杜甫의 시를 자주 원용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sup>75)</sup>

이러한 점은 같은 시기를 공유한 황시간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는 「有懷」라는 시에서 3월의 늦은 봄 궁궐에는 가지 가득 푸름을 더하는데, “갯버들에 부질없이 工部の 눈물을 더하고, 강산은 속절없이 伯仁의 슬픔을 전하네. 의관과 문물도 옛 모습 아니며, 성시와 백성도 지난 날과 다르네. 彭原의 오랑캐가 물러갔다 들었는데, 무슨 일로 임금께서 더디 오는지 모르겠네.”<sup>76)</sup>라고 하여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이 전란으로 슬픔만 더한다고 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한 상황에 바빠 돌아와 이를 회복해야 할 군신은 왜 아직 오지 않는지 원망 어린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73) 申之梯, 『梧峯先生文集』 권7, 「拾遺, 奉呈雪月丈寄懷」; 권1, 「詩, 病中漫述」; 권3, 「詩, 合浦感懷 七十韻」 권5, 「詩, 聞王參政 領舟師二萬到鴨綠江, …」.

74) 김기엽, 「오봉 신지제의 생애와 시에 표출된 鬱結의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76, 한국한문학회, 2019, 362~368쪽.

75)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9, 185~186쪽.

76) 黃時幹, 『道川詩稿草』, 「有懷」, “… 蒲柳謾添工部淚, 山河空寄伯仁悲. 衣冠文物非前日, 城市人民異昔時. 聞道彭原封豕退, 不知何事翠華遲.”

그런데 신지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 근본에는 여전히 修己의 학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1598년 일찍이 그는 琴蘭秀에게 베껴 달라고 부탁한 『古鏡重磨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sup>77)</sup> 이 책은 이황이 탕왕의 「반명」을 비롯한 여러 성현들의 箴, 銘, 贊 77편을 모은 것으로, 마음 수양에 대한 가르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는 평소 이황을 흠모하여 직접 배우지 못함을 한탄하곤 했는데, 이 책이 이런 아쉬움을 대신하여 항상 지니며 마음 수양에 힘썼다고 한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까. 1605년, 그가 사헌부 지평에 있었을 때, 선조가 풍수의 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구하니 차자로 답하기를, 聖學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천지의 변괴가 생기는 것은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인사의 중심에는 군주가 있기에 스스로 큰 근본을 세우고 큰 강령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울이 밝아지고 저울대가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임금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현명한 이와 사특한 이가 혼동되는 바가 없고 공과 사가 섞이지 않게 하며 사소한 규례에 얽매이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주인이 되면 백 개의 몸이 명령을 따르는 법이어서, 비유하면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천 줄기와 만 가지가 저절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되면 나라는 굳이 다스릴 것도 없습니다.<sup>78)</sup>

물론 신지제는 군주가 성학을 따르는 것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이를 온전히 실행하기 위한 재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용문에 이어 “전하께서 보위에 오른 뒤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格致誠正의 학문과 參贊位育의 공부, 剛柔中正의 법도를 오래도록 익히고 편안하게 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어진 재상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힘썼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한 언급을 보면, 지금까지 군주가 성학에 노력하지

77) 申之悌, 『梧峯先生別集』, 「梧峯先生年譜」.

78) 申之悌, 『梧峯先生文集』 권7, 「筭, 憲府筭子」.

않은 바 아니나 이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인재 등용의 문제라는 것, 즉 일에 합당한 인물을 찾아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른바 君臣共治의 이상을 제시한 것이다.

## V. 나오며

‘한강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구와 그의 문인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실들, 즉 생애와 행적, 학문과 사상, 문화와 공간 등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연동되어 한국유학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 한강학을 비롯한 이 지역의 사상적 특징을 ‘회통성’과 ‘실천성’, ‘자득성’과 ‘독창성’으로 정리한 것은 이러한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다만 이 특징들이 하나의 ‘학’적 정체성으로 온전히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말들은 여기에만 호응되는 것이 아닌, 그리 차별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퇴계학과 율곡학에도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그 내용인즉,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구를 확대하고 보다 깊은 분석과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상주권의 한강 문인에 대한 개괄적인 윤곽을 살펴보고자 했다. 상주권은 동저서고의 지형으로,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서쪽으로는 속리산과 덕유산이 험준한 산세를 이룬다. 이 사이에 상주를 비롯한 문경, 예천, 풍기, 의성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모두 퇴계학의 자장 속에 있다. 특히 류성룡에게서 정경세로 이어지는 서애-우복학맥이 중심에 자리하되 김성일에게서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봉-대산학맥이 그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여기에 산과 강으로 어우러진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기호학과의 소통이 열려 있었고, 남명학의 전래 또한 이루어져, 이른바 다양한 학문이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한강 문인은 모두 18명이 확인되는데, 상주에 정윤해, 조정, 황시간 등 10명으로 가장 많고, 의성에 신지제, 권수경 등 4명, 예천에 정윤위, 정윤목 등 4명이 있었다. 이들은 정구의 문하에만 나아간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파에 출입하며 학문적 교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의 학문이 단순히 퇴계학 내지 한강학의 계승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퇴계학 또한 그 본령에 이견이 없지 않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여러 학인들의 지역적 확산을 통해 그들이 계승하고 있는 전통이 일관될 수 없다. 더욱이 상주지역의 경우 여러 학문적 유입으로 인해 퇴계학의 변모는 불가피함을 볼 때, 이들의 학문 또한 단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상주지역 유학의 특징은 기존의 ‘회통성’과 ‘실천성’을 전제로 하되 퇴계학이 가진 도남학적 전통보다는 호상학적 색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강학의 유입은 動時의 함양에 ‘敬’을 통한 심학적 경향을 보다 짙게 드러내고자 한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은 이들 문인들의 학문적 특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차후 여기에 언급된 문인들의 개별 연구를 진행하여 이러한 특징들이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輿地圖書下』.

『擇里志』.

權守經, 『自樂堂先生遺集』

鄭允穆, 『淸風子先生文集』.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申適道, 『虎溪先生遺集』.

申之梯, 『梧峯先生文集』.

鄭述, 『檜淵及門諸賢錄』.

趙靖, 『黔澗先生文集』.

黃時幹, 『道川詩稿草』.

남명학연구원 편,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한강학연구원 외 편, 『한강 정구와 무흘문화』, 역락, 2018.

홍원식 외, 『조선중기의 ‘낙중학’ -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권오영, 「서애 류성룡 경학사상의 심학적 성향」, 이성무 외, 『류성룡의 학술과 경론』, 태학사, 2008.

금장태, 「서애 류성룡의 哲學思想」,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5, 19~32쪽.

김기엽, 「오봉 신지제의 생애와 시에 표출된 鬱結의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76, 한국한문학회, 2019, 337~374쪽.

김기현, 「주자학의 미발 개념 정립 과정」, 『양명학』 44, 한국양명학회, 2016, 167~200쪽

김용재, 「서애 류성룡의 양명학 이해와 비판에 관한 고찰」, 『양명학』 23, 한국양명학회, 2009, 243~276쪽.

김학수, 「이천배, 천봉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역할과 위상」,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45~89쪽.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

- 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130~211쪽.
- 안영상, 「서애 류성룡의 양명학관에 대한 재검토」, 『양명학』 23, 한국양명학회, 2009, 67~99쪽.
- 이상하, 「한국 성리학 칠정리발설의 계보 상에서의 응와 이원조」, 『퇴계학과 유교 문화』 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69~93쪽.
- 이수건,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1995, 1~17쪽.
- 장숙필, 「호계 신적도의 의리사상과 그 사상적 토대」, 『동양고전연구』 33, 동양고 전학회, 2008, 97~129쪽.
- 장승구, 「우복 정경세의 철학과 경세론」, 『영남학』 5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 원, 2012, 1~30쪽.
- 장운수, 「예천지역 성리학계의 지형도 -16~17세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 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301~340쪽.
- 장인진,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 『영남학』 8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 연구원, 2023, 239~290쪽.
- 정우락, 「16세기 예천지역의 학풍과 약포 정탁」, 『영남학』 89, 경북대학교 영남문 화연구원, 2024, 203~230쪽.
- 정우락, 「성주지역 도학의 착근과 강안학파의 성장」, 『영남학』 21, 경북대학교 영 남문화연구원, 2012, 45~78쪽.
- 최은주,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 남문화연구원, 2015, 185~211쪽.
- 추제협, 「이황의 사단칠정론과 마음공부」, 『안동학』 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137~161쪽.
- 추제협,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 단설과 병설의 통합적 사유」, 『영남학』 78, 경북 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99~128쪽.
-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231~271쪽.
- 추제협, 「천사 김종덕의 생애와 거경궁리설」,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2020, 241~277쪽.
-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 경북대 영남문 화연구원, 2019, 179~211쪽.

## Hangang-Hak, The Learning and Thought of Han-Gang's Students

Choo, Je-hyeop

As research on "Hangang-Hak" progresses, it has been reported as "comprehensiveness," "originality," and "practicality" for its philosophical characteristics, and in order for these characteristics to be established as a "academic" ident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the specific content is. To do this, current research must be expanded and further analyzed and discussed. In that respect, this article is nothing more than a general outline of the Sang-Ju Region's Han-Gang's Students. The Sang-Ju Region is a low east and high west due to rivers and mountains from the left and right, and this includes Sangju, Mungyeong, Yecheon, Punggi, and Uiseong. Confucianism in this area is in the magnetic field of Toegye-Hak. In particular, the academic background from Ryu, Seong-ryong to Jeong, Gyeong-se is at the center, and the academic background from Kim, Seong-il to Yi, Sang-jeong is expanding its power. Here, communication between semiotics and Nammyung-Hak was also open, so various studies could be integrated. A total of 18 Han-Gang's students in this area are identified, and it is confirmed that they did academic exchange by entering the various aforementioned schools, not just under the guidance of Jeong-Gu. Therefore, their studies share the comprehensiveness and practicality identified in the previous studies, while showing a strong tendency towards 'Mind and Heart Learning' represented by Ching-Hak in the Huxiang School colors of the group

from Seoae-Ubok.

**keywords :**

Hangang Jeong-Gu, Sang-Ju Region, Han-Gang's Students,  
Comprehensiveness, Huxiang-Hak, Ching-Hak

